

與 “전면 백지화” vs 野 “이번주 완료”... 원구성 극한 대치

11개 상임위 반쪽 구성 후 협상 중단... 입장차 극명해 돌파구 난망 민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20일 단독 본회의 가능성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앞 다투어 외쳤던 ‘민생 국회’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반쪽’으로 구성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각자 입장만 고수하며 평행선만 달리는 형국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맞선 상황이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여야는 서로 민생을 앞세우며 대외적 명분 쌓기에만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 사이 국회 상임위는 ‘반쪽 파행’이 고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자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으며 자체 특위 가동과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릴레이 의원총회로 대응책을 모색해온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에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관련 일대일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겪는 ‘이중고’가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치 정국을 풀자는 현실론이 있고, 결론 없이 이어지는 의원총회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여야의 입장

이 서로 강경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지만, 대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 특위 활동과 대야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선출해 원 구성을 마치고 국회를 ‘완전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자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당이 원하는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인 데다 ‘입법 독주’ 프레임에 피할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여당에 시간을 더 줄 필

요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이면 우 의장을 설득해 20일째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내 관계자는 “각종 민생, 안보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 의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의 개의를 원 우 의장은 일단 이번 주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3일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강행하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의 협상 요청에 따라 원 구성 완료 목표 시점을 늦춘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중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당대표 연임’ 결론 임박

민주당 전대 경선 후보 등록 공고 전 이달말 입장 발표 유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연임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르른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16일 북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다음 달 초 대표 경선 후보 등록 공고 전인 이달 말 정도에 연임 도전에 대한 입장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임을 결심해 후보 등록을 하면 규정 상 현 대표직을 내려놓고 선거 준비를 해야 하므로 입장 발표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표는 공식이 되는데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해 당무에 다시 복귀할 때까지는 절차상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 맡게 된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 주 출범을 목표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고, 전준위 첫 회의 이후인 내달 초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방침이다.

현재 이 대표는 연임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연임 쪽으로 사실상 마음을 굳혔다는 것이 당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연임에 대해 광장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으나 분위기가 연임 쪽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이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정치작업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당헌 개정안도 17일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당무위에서 원안 의결됐다.

다만 연임을 결단해야 하는 시점에 재점화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공식선거법 관련 재판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 전기료 인상 유예 추진

당정 고위급 협의회...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6일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5만 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울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지난해보다 가구당 1만원 늘렸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11만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해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당정은 울여름 철저한 전력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면붕괴·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 3만 곳을 점검하고 AI(인공지능) 기반 홍수 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방지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

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해선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난 12일 쌍방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는 한꺼번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고, 여권이 이 대표를 겨냥해 ‘방탄용 연임’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당무를 최소화하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주 3~4회 법정에 나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 대표는 ‘희대의 조작 수사’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사법 리스크에 정면 대응하는 분위기다.

또한 사법 문제와는 별개로 이 대표는 입법 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이 대표 측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이미 재판은 일상이 된 상황으로 추가 기소됐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빨리 원 구성을 마쳐 국회에서 민생을 쟁길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